

## 대한미세수술학회 설문조사 결과 보고

대한미세수술학회

한현언 · 정덕환 · 김우경

— Abstract —

### Results of Questionnaire: The Korean Society for Microsurgery

Hyun-Oun Hahn, M.D., Duke-Whan Chung, M.D., Woo-Kyung Kim, M.D.

*The Korean Society for Microsurgery*

For the better success in the society, it is important to collect opinions from members. The progress was slow before because it was hard to collect the opinions from each member. But since we have opened the web site it gets easier to evolve with the society for microsurgery, and expect to have active participations from the members.

We make 20 questions in three different groups. The researches are made on participation, development in science council that starting from 2005 October to 2007 June, education on training with member's preference to thesis and individuality and suggestion. Thus we have results following to that research.

1. 75% of the members vote for the lecture has to be substantial, and also want the atmosphere of the council to be more sincere. 46.2% of members want the council to be not only exchange information but also the place to experience the social intercourse.

2. When the thesis is present and submitted that will also connect to main society. It will be counted as equal as board thesis, only if the thesis can count in both plastic & reconstructive surgery and orthopedic surgery. Then it will be scored as same as examination of board, and will be a receipt of paper by home page

3. The information-oriented project on our council is slower than what members expected. 100% of members voted yes to online thesis examination, and 66.7% of members voted for preference of web site. We need to make improvements on our web pages as soon as possible such as online payment with credit card.

---

※통신저자: 정 덕 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1번지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Tel: 82-2-958-8368, Fax: 82-2-964-3865, E-mail: dukech@khmc.or.kr

4. According to the result of questionnaire, our web site helps member's participation in council and eventually become a bridge between members.

We hope the questionnaires would help us to develop the council and eventually would help us to society with each other in the council. We also hope this council would be the one that connect all of us in society.

**Key Words:** Questionnaire, Microsurgery

## I. 서 론

학회 운영을 위하여 학회 임원진들은 이사회를 통하여 발전 의견을 제시하나 회원의 의견과 그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오차를 줄이는 범위로 오프라인 상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이 있으나 매번 설문지에 의한 의견수렴이 불가능하여 사업 진척을 보지 못하였다.

정보화 사업 후 회원이 공유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이용한 회원들의 의견 수렴이 용이하며, 차기 학회의 준비를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하여 지속적인 회원의 의견 수렴을 홈페이지의 설문조사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정보화사업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 회원의 의견수렴 방법이 간편하며 지속적인 설문조사를 통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들의 의중을 분석하고 성공적인 학회운영, 발전적인 차기학회를 위한 검토 자료로 유용하다.

설문 목적은

첫째, 회원들의 학회 참여와 관심 고취

둘째, 각 설문 조사를 분석하여 회원의 선호도를 조사하며 학회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함.

셋째, 설문조사를 근거로 집행부에 건의하여 학회의 합리적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대상 및 방법

설문조사는 1.자기 기입식, 2.면접 설문조사, 3.전화 설문조사, 4. 인터넷을 통한 방법 중 대한미세수술학회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집행부에 제시하기 위하여 2005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1개월간, 20개의 설문조사를 대한미세수술학

회 홈페이지의 인터넷 설문조사를 이용하였고 (Table 1) 대상자는 대한미세수술학회(www.microsurgery.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가입한 회원 396명을 대상으로 로그인시 1인 1회만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고 회원의 비밀정보 유지를 위하여 익명처리 하였다. 학술대회 참여 및 발전에 관한 설문조사 11개 항목, 수련 교육 및 논문과 회원의 개인적 취향 설문 조사 5개 항목, 회원의 개성 및 시사 문제에 관하여 설문조사 4개 항목 등 3개 주제 21개 설문 조사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 하였다. 설문조사 참여인원은 최소 7명에서 최대 17명 이었고, 년 인원 236명이 참여 하였다. 설문 조사당 평균 11.8명(2.96%)의 회원이 참여 하였다. 월말에 설문 조사 결과와 익월 설문 조사 내용을 전체 회원에게 전자 메일 발송하였고 참여 독려를 위해 회원들에게 1개월에 월 3회 이상 홍보메일을 보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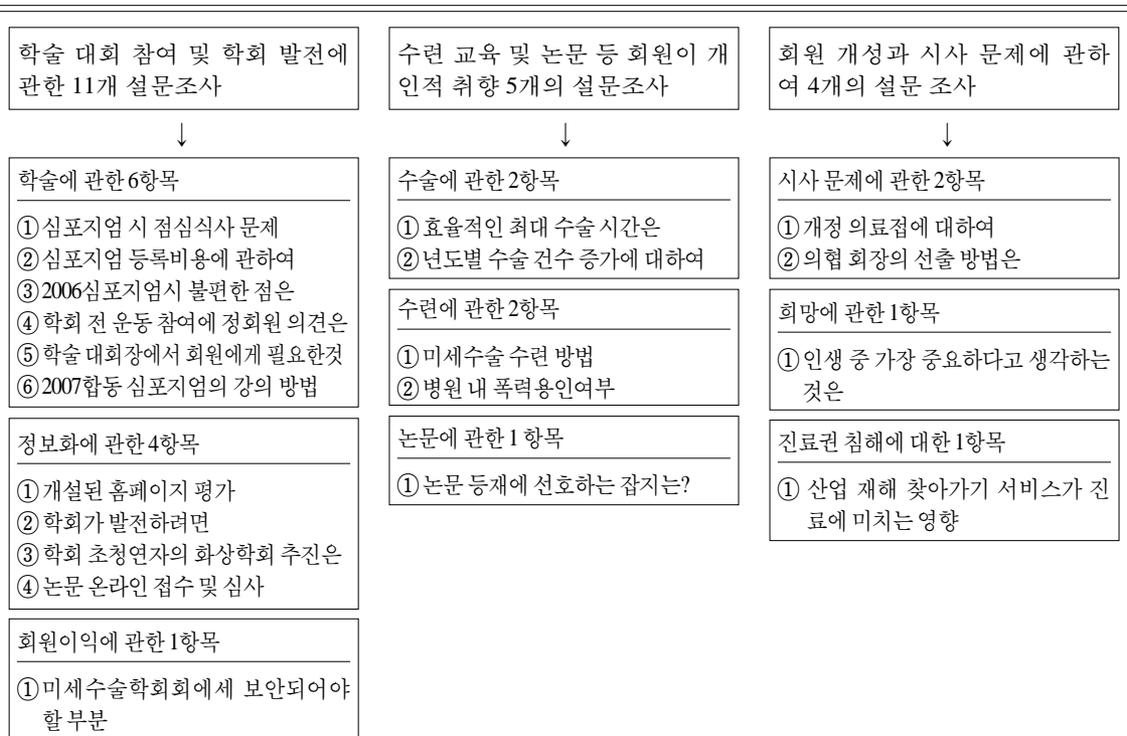
## III. 결 과

20개의 설문조사를 3개로 분류하였고(Table 2) 첫 번째, 학회에 관한 11개 항목 중 학술대회에 관한 6개 항목, 정보화 관련 4개 항목, 회원의 실익적인 측면 1항목이고 두 번째는 5개 항목인 수련 교육 논문에 의한 설문 조사로서 수련에 관한 2항목, 수술에 관한 2항목, 논문에 관한 1항목과 마지막 세번째로, 4개의 시사에 관한 설문조사는 회원의 희망에 대한 1항목, 진료 시 부당한 조건의 1항목, 시사에 대하여 2항목으로 세부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교육정도가 동일한 전문의로서 미세수술학문의 연구 종사하는 군으로 조사하였으며 대상자의 성별, 나이 등은 모두 익명화 하였다. 이는 다양한 연령층에 따라 설문조사 결과가 달라 질 수 있으나 동일 직업과 특히 세

**Table 1.** 월별 설문 조사 내용, 기간 참여 회원수

제목	설문조사기간	참여인원
개설된 홈페이지 평가	2005-10-01~2005-11-30	9명
학회가 발전하려면	2005-12-01~2005-12-31	11명
효율적인 최대 수술 시간은	2006-01-01~2006-01-31	12명
미세 수술 수련 방법	2006-02-01~2006-02-28	15명
심포지엄시 점심식사 문제	2006-03-01~2006-03-31	13명
심포지엄 등록 비용에 관하여	2006-04-01~2006-04-30	12명
병원내 폭력 용인 여부	2006-05-01~2006-05-31	7명
2006심포지엄시 불편한 점은	2006-06-01~2006-06-30	12명
학회 초청 연자의 화상학회 추진은	2006-07-01~2006-07-31	12명
논문등재에 선호하는 잡지는	2006~08-01~2006-08-31	12명
학회 전 운동참여에 정회원 의견은	2006-09-01~2006-09-30	7명
미세수술학회에서 보완 되어야 할 부분	2006-10-01~2006-10-31	15명
학술 대회장에서 회원에게 필요한것	2006-11-01~2006-11-30	14명
년도별 수술 건수 증가에 대해	2006-12-01~2006-12-31	17명
인생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2007-01-01~2007-01-31	15명
2007 합동 심포지엄의 강의 방법	2007-02-01~2007-02-28	9명
논문의 온라인 접수 및 심사	2007-03-01~2007-03-31	13명
개정의료법에 대하여	2007-04-01~2007-04-30	13명
의협 회장의 선출 방법은	2007-05-01~2007-05-31	8명
산업 재해 찾아가기 서비스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	2007-06-01~2007-06-30	10명

**Table 2.** 설문조사 유형별 분류



분화된 의학 분야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대상으로 한정 하였다. 회원의 비밀 유지를 위하여 성별, 나이, 회원 분류에 대하여는 논하지 않았다.

가. 학술 대회 참여 및 발전에 관한 설문 조사  
(11개 항목 대분류)

심포지엄 시 점심으로 일식도시락을 46.2%에서 선호하였지만 노천 뷔페 등, 색다른 점심 식사를 원하는 군도 도시락을 선호하는 군과 46.2%로 동일하였다.

심포지엄의 등록비용은 50%에서 현재의 10만원 보다 싼 8만원을 원하여 10만원 이하가 66.7%로서

등록비용이 비싸다는 항목을 선택하였다. 2006 심포지엄이 불편한 점은 50%가 심포지엄 내용이 부실하였다고 응답하였고 25%에서 심포지엄 진행이 미숙 지적과 16.7%의 점심식사나 8.3%의 심포지엄 장소라고 응답하였다. 2006년 심포지엄의 내용과 진행에 75%가 불만족 표시 하였고 16.7%에서 식사의 불만이 있었다.

학회에 대한 회원 관심도는 학술 대회 시 운동 참여 질문에 7명 중 5명(71.4%)이 참여 의지가 있다고 선택 하였는데, 이는 학술 대회를 축제 분위기로 유도하여 학술적 목적 이외에 회원 간 교류와 참여하는 학회를 원하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학술 대회장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부분으로 임원

**Table 3.** 학술에 관한 6항목 설문조사 결과

① 심포지엄시 점심 식사 문제	(총 투표자 수 : 13명) 6 표 (46.2%) 일식 도시락 맞춤 5 표 (38.5%) 노천 뷔페 1 표 (7.7%) 학생 식당 1 표 (7.7%) 점심식사 생음악이 라도
② 심포지엄 등록비용에 관하여	(총 투표자수 : 12명) 6 표 (50%) 8 만원 4 표 (33.3%) 12 만원 2 표 (16.7%) 10 만원
③ 2006심포지엄시 불편한 점은	(총 투표자수 : 12명 ) 6 표 (50%) 심포지엄 내용 3 표 (25%) 심포지엄 진행 2 표 (16.7%) 점심식사 1 표 (8.3%) 심포지엄 장소
④ 학회 전 운동 참여의 정회원 의견은	(총 투표자수 : 7명 ) 5 표 (71.4%) 참여 하겠다 2 표 (28.6%) 참여 하지 않겠다
⑤ 학술 대회장에서 회원에게 필요한 것	(총 투표자수 : 14명 ) 7 표 (50%) 학회 임원들이 아는척 했으면 좋겠다 4 표 (28.6%) 도우미등 학술대회장이 부드러웠으면 한다 2 표 (14.3%) 기념품의 품질이 더 좋았으면 한다 1 표 (7.1%) 음료, 커피, 스넥이 좋았으면 한다
⑥ 2007합동 심포지엄의 강의 방법	(총 투표자수 : 9명 ) 5 표 (55.6%) 수술 비디오 강연 2 표 (22.2%) 연부조직 재건 1 표 (11.1%) 기초 영역 1 표 (11.1%) 수부 재건

과 인사를 원하는 회원이 50%로 회원들 간의 교류와 사교의 장소로 생각하였으며 28.6%에서 도우미 등으로 학술 대회장이 분위기 향상을 원하였고 14.3%에서 기념품 품질 향상, 7.1%에서 음료 등으로 50%에서는 보다 나은 양질의 학회장을 원하며, 학회 참석 시 학술 대회장의 학문과 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의견이 양립되어 이 역시 흥미롭다.

2007심포지엄에서는 강의 방식이 55.6%에서 수술의 비디오 강연을 원하며 실제 수술 기법 등의 전수를 반수 이상에서 원하였으나, 수부재건이나 기초 분야는 각각 1%에 불과하였다. 과거에 발표나 등록 위주의 학회에서 최근에는 수술과 실제 진료에 응용이 요구되는 심포지엄을 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개설된 홈페이지의 대한 평가는 9명이 설문 조사 참여 중 7표, 77.8%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있었고,

학회의 발전에 관한 설문 조사 시 인터넷 홈페이지가 45.5%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며 회원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회원 가입 36.4%에 이어 마스크 홍보 18.2%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응답자의 73.7%에서 정보화를 이용한 홍보와 회원수 증가는 인터넷 홈페이지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 62.5%에서 학회의 초청연자는 화상 학회 방식으로 화상 토론 연자를 원하는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 37.5%만이 현행과 같은 연자 초청을 고집하였고 시기상조라는 의견은 0%였다.

논문 온라인화는 설문 참여 인원이 13명 모두 100%가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회원 학회 정보화 요구도는 이미 학회 정보화 사업보다 앞서가고 있다 (Table 4).

대한 미세수술학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20%에서 회원 수 증가와 13.3% 회원의 학회 참여를 선

**Table 4.** 정보에 관한 4항목 설문조사 결과

① 개설된 홈페이지 평가	(총 투표자 수 : 9명) 6 표 (66.7%) 모두 마음에 든다 2 표 (22.2%) 콘텐츠가 부족하다 1 표 (11.1%) 디자인이 좋다 0 표 (0%) 너무 못 만들었다
② 학회가 발전 하려면	(총 투표자 수 : 11명) 5 표 (45.5%) 인터넷 홈페이지 4 표 (36.4%)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회원 가입 2 표 (18.2%) 마스크 홍보
③ 학회 초청연자의 화상 학회 추진은	(총 투표자 수 : 12명) 5 표 (62.5%) 화상 토론을 시작하여야 한다 3 표 (37.5%) 연자 초청이 더 낫다 0 표 (0%)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④ 논문 온라인 접수 및 심사	(총 투표자 수 : 13명) 13 표 (100%) 빨리 시행해야 한다 0 표 (0%) 시기상조이다 0 표 (0%) 상관없다

**Table 5.** 회원 이익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① 미세 수술 학회에서 보완 되어야 할 부분	(총 투표자 수 : 15명) 10 표 (66.7%) 건강보험 수가 인상 3 표 (20%) 회원수 증가 2 표 (13.3%) 회원 학회 참여의지
--------------------------	--

택하여 33.3%에서 학회 참여와 회원수 증가를 선택한 반면 현실적인 면에서 실제 수술의 난이도에 비하여 저평가된 건강보험 수가의 인상을 66.7%에서 바꿨다(Table 5).

나. 수련 교육 및 논문 등 회원의 개인적 취향 설문 조사 5개 항목

미세수술은 장시간 소요되는 난이도가 높은 수술을 감안하여 75%에서 4시간 정도면 집중력과 능력이 떨어져 교대가 적합하다고 답변하였다.

수술건수의 증가는 52.9%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늘은 반면 47.1%에서 수술 건수가 줄었다고 답하였으며 이는 미세 수술 병원의 증가와 맞물린다

(Table 6). 미세수술의 기법은 73.3%에서 동물 실험을 통하여 익히는 수련 교육을 전수해야 한다고 했으며, 수련 교육 시 언어폭력을 포함한 폭력은 어떠한 이유든 용납 될 수 없다고 42.9%, 환자를 위하여서는 어느 정도 용인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57.2%에서 하였으나 폭력의 대상인 저년차 전공의가 많이 참여하였다면 설문조사의 결과가 달라 질수 있었다 (Table 7).

논문은 70%에서 SCI 등 외국잡지 게재를 원하여 대한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하겠다는 설문조사지는 0%로서 논문투고와 게재는 중복 게재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자학회지의 잡지 발간이 어려워진 현실을 입증하였다(Table 8).

**Table 6.** 수술에 관한 2항목 설문조사 결과

① 효율적인 최대 수술 시간은	(총 투표자수 : 12명) 9 표 (75%) 4 시간 이하 3 표 (25%) 4 시간 초과 8 시간미만 0 표 (0%) 8 시간 이상
② 년도별 수술 건수 증가에 대하여	(총 투표자수 : 17명) 8 표 (47.1%) 작년에 비하여 수술 건수가 줄었다 5 표 (29.4%) 작년과 비슷하다 4 표 (23.5%) 작년에 비하여 수술 건수가 늘었다

**Table 7.** 수련과 관련된 2항목 설문조사 결과

① 미세 수술 수련 방법	(총 투표자수 : 15명) 11 표 (73.3%) 동물부터 시작 한다 4 표 (26.7%) 수술실에서 일정기간 참관 후 인체부터 시작 한다
② 병원 내 폭력 용인 여부	(총 투표자수 : 7명) 3 표 (42.9%) 어떠한 이유이든 용납될 수 없다 2 표 (28.6%) 수련과 환자를 위하여는 불가피하다 2 표 (28.6%) 언어폭력 정도는 필요없이다

**Table 8.** 논문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① 논문 등재에 선호하는 잡지는	(총 투표자수 : 12명) 6 표 (60%) SCI 등재 잡지 3 표 (30%) 모 학회 잡지 1 표 (10%) 비 SCI 등재 외국잡지 0 표 (0%) 자 학회 잡지
-------------------	---

다. 회원 개성과 시사 문제에 관하여

현재 국회에서 통과하지 아니한 개정 의료법에서 69.2%가 내용을 안다고 하였고 설문 조사 시 의료 개정법에 링크가 될 수 있게 홍보하였으나 의외로 30.8%에서는 관심도 없고, 모른다고 답하였다.

의협 회장 선출방법 중 최근 3년간 회비로 낸 회원에게만 주는 선거권을 회원 모두에게 주어야 한다고 62.5%에서 선택 하였다(Table 9).

세수술환자의 상당 부분이 산업 재해 환자여서 근로 복지 공단에서 시행하는 찾아가기 서비스란 제도로 행정 절차 중복 및 진료 개입으로 인해 90%에서 산업 재해 환자의 진료시 지장이 많다고 답변을 한 것으로 근로 복지 공단의 서비스에 의해 병, 의원 주치의사는 진료에 불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0).

미세수술은 고난이도의 수술로서 의사의 건강과

시간을 소홀히 하기 쉬우며 환자와 수술실에서 많은 시간을 접하는 수술입니다. 설문조사결과 의외로 46.7%에서 사랑을 년 초에 기원하였으며 20%에서 만 가정의 화목과 건강을 기원하였다(Table 11).

Ⅳ. 고 찰

학회는 예, 결산 등은 이사회 검토와 상임 이사회에서의 안건 발의 및 의견수렴과 전체 이사회와 총회에 의하여 안건의 가결과 인준 후 학회를 운영한다. 회원은 연수평점, 전문의 고시를 위해서 피동적으로 학술 대회에 참여해 왔다.

과거에는 학술대회 중 총회 진행은 회원의 무관심 상태에서 진행 되거나, 적은 수의 참여 회원마저 임원이 대부분이여 일반 회원은 의사표시를 학회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2005년 10월 대한미세수술학회 홈페이지의 개설

**Table 9.** 시사 문제에 관한 2항목 설문조사 결과

① 개정 의료법에 대하여 얼마나 아시나요?	(총 투표자수 : 13명) 9 표 (69.2%) 잘 안다 2 표 (15.4%) 모른다 2 표 (15.4%) 관심 없다
② 의협 회장의 선출 방법은	(총 투표자수 : 8명) 5 표 (62.5%) 회원 모두에 선거권을 준다 2 표 (25%)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꾼다 1표(12.5%) 후보 공청회를 이용한다

**Table 10.** 진료권 침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① 산업 재해 찾아가기 서비스가 진료에 미치는 영향	(총 투표자수 : 10명) 9 표 (90%) 진료에 지장이 많다 1 표 (10%) 진료에 지장이 없다 0 표 (0%) 상관없다
------------------------------	---

**Table 11.** 희망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① 인생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총 투표자수 : 15명) 7 표 (46.7%) 사랑 4 표 (26.7%) 금전적 수입 3 표 (20%) 가족의 화목, 건강 1 표 (6.7%) 명예
-------------------------	---

에 의한 정보화 사업 후, 정회원이 절차 없이 직접 집행부에 수시로 학회에 대한 건의와 질문이 가능하였고, 홈페이지는 학회에 대한 일반 정회원의 관심을 끌어내며 집행부에 대한 회원 요구사항과, 선호도를 설문 조사하여 학회 개최, 내용 및 진행에 참고 자료로 이용하게 되었다.

매월 정기적 설문 조사를 통한 학회 개선 노력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먼저 다가가서 집행부에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기 시작하여 단절된 회원과 학회의 교량 역할을 함께 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시, 2005년 10월부터 2007년 6월까지 21개월간 대한미세수술학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학회 관련해 회원들이 요구하는 정보화는 초청연자를 화상 토론 연자로 62.5%, 논문의 온라인은 100%가 시행에 찬성하였으며 홈페이지 개설 후 홈페이지에 대하여 77.8%가 긍정적인 답변과 학술대회 내용으로는 수술 비디오, 동영상 강연을 55.6%에서 원하였다. 5개 항목의 설문 조사 결과 평균 68.24%에서 학회 정보화 사업 시행 및 계획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여 2005년 10월 학회 홈페이지 구축은 다소 늦은 면이 있었으나 홈페이지 개설 전 FAX로 등록받던 학술대회 접수를 FAX 등 오프라인 접수 병행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한 온라인 등록을 100% 시행하였는데 불편하거나 누락된 회원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학회 정보화 사업은 회원 요구보다 한 걸음 뒤늦은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홈페이지에 논문 온라인 심사를 구축하였지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 편집위원회는 논문 온라인 심사 창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학술 대회 참여 및 발전을 원하는 설문 조사에 36.4%가 회원 자발적 참여로 정회원 가입을 선택하였고, 2005년 10월 정보화 사업 후 오프라인 정회원 수는 2007년 6월 현재 547명으로 사업 전 439명보다 24.6%인 108명의 회원수가 증가하였으며, 온라인 회원가입은 2005년 108명, 2006년 256명, 2007년 6월 32명으로 총 396명이며 홈페이지 개설 후 월 11.8명의 회원이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미세수술학회 온라인상의 홍보는 적절하였다고 할 수 있다(Table 12). 학회 점심식사는 46.2%가 일식 도시락을 선택하였지만, 다른 46.2%에서는 노천 뷔페나 점심시간 생음악을 선택하여 먹거리 방식

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 하였다. 학술 대회장에서 회원이 가장 많이 바라는 것은 50%에서 학회 임원들과 인사 및 교류를 원하였고, 28.6%에서 도우미들에 의한 학술대회장이 부드러웠으면 하는 바람을 나타내어 78.6%에서 학술 대회의 경직된 분위기의 변화가 요구 되었다. 합동 심포지엄 시 75%에서 심포지엄 내용과 진행이 중요하다 하였으며, 55.6%에서 수술의 비디오 강연을 원하여, 이론이나 해부학적 구조보다는 실기의 수술 방법 재연을 원하여 과거의 이론보다는 실기 쪽에 비중이 치우쳤다. 학술 대회장의 분위기 바뀌기를 원하는 회원이 점심 식사 46.2%, 학회장에서 직접 임원이 회원을 맞이하거나 도우미등을 원하는 78.6%, 학술 대회 내용적인 면에서 55.6%에서 수술 동영상을 원하였듯이 설문참여회원 과반수이상 (60.13%)에서 학회장 내, 외 환경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정회원으로서는 요구 사항 중 60.7%가 수술 난이도에 비하여 적게 책정된 수가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보험 위원회에서는 미세수술 관련 건강 보험 수가 인상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다.

회원은 학회가 개방적이며 투명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회원가입(81.9%)을 통하여 학회를 발전하여야 하며 2006 합동심포지엄은 심포지엄의 내용과 진행(75%) 미숙에 대한 재 오류를 범하지 아니하며, 수술 동영상의 비중을 증가시키며, 학술 대회가 학문 교류의 장과 회원 간의 만남의 사교장소가 동시에 이뤄지기 위하여서는 점심식사와 일식 도시락(46.2%)을 원하는 회원이 있지만 동일한 답변군인 노천 뷔페와 점심시간의 생음악이라도 (46.2%)로 찬성한 것으로 미루어서 점심식사 시간을 30분 정도 늘리기 위하여 심포지엄 개최를 30분 정도 앞당겨서 연장된 점심식사시간에 회원 간 사교,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는 것도 변화를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심포지엄 등록비는 설문 조사에 과반수이상인 66.7%에서 현행 10만 원이하 등록비를 선택한 것으로 미루어 학회는 사전홍보로 많은 회원등록과 더불어 협찬업체 확보 및 단행본 인쇄와 같은 학회 경비 절감을 통하여 향후 현재 10만원의 사전 등록비용 인상을 최소화 하여야겠다.

회원들이 초청된 학회는 열린 마음으로 집행부는 회원을 반갑게 맞이하는 학술개최에 응답(50%)은

참석한 회원이 소외감이 없도록 집행부에서는 등록하는 회원들을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하며, 회원 간 얼굴을 익혀, 차기 학회를 기약하여 헤어질 수 있으며, 명암교환, 집행부와 사진 촬영 등 참석한 회원 상대로 이벤트를 개최하여 선물 증정으로 학문과 배움의 장과 더불어 회원 간 교류 장소로서 학술대회는 개최 시 2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수련교육 시 수술연수는 전문성과 난이성이 높고 필요한 미세수술이므로 동물 실험을 우선하여 (73.3%)에서 시술을 익히며, 수련의에 대한 원내의 폭력에 대한 설문은 수술 후 결과가 확인하며 섬세한 스킬과 수술 후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미세 수술 환자 치료 등에 있어선 57.2%에서 언어폭력 등이 환자를 위하여서는 불가피 하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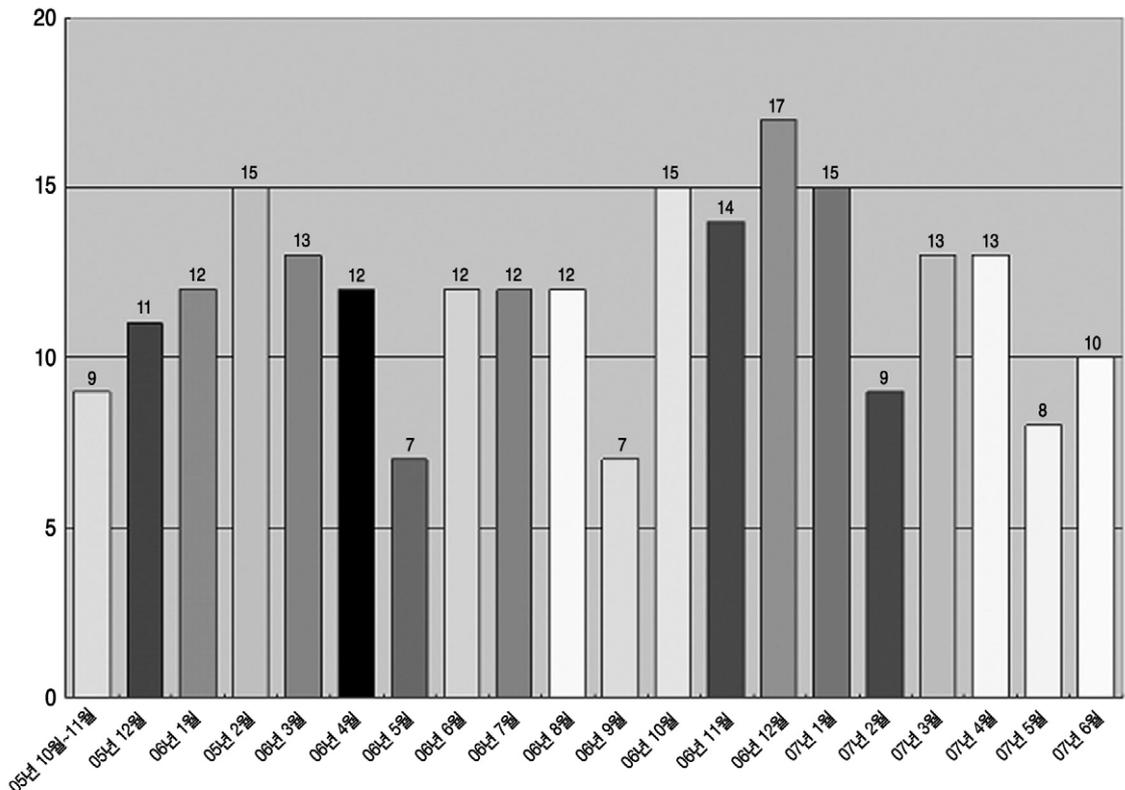
미세수술은 동물 실험으로 충분히 슬기 숙달 후 수술에 보조 역할부터 시작하면서 연수 받고 있으며, 수련이라는 특성상 어느 정도의 언어 혹은 폭력은 수련과정 중 불가피 하다고 답변하였으나, 대상

자인 저 년차 전공의 참여자가 설문조사에 증가하였다면 병원 폭력의 불가피성은 57.2%보다 낮아질 수 있다.

논문 게재에 관한 설문 조사는 현재 대한미세수술학회지가 년 2회 발간되며 게재 논문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인은 자 학회 잡지에는 0%에서 게재를 원치 않으며 100%에서 SCI 등재 잡지 등 국내 모 학회 잡지에 게재를 선택한 것은 세분화 되고 전문성이 높은 미세수술학회 논문이며 중복 게재가 불가한 현실에 회원들의 선택은 당연하다. 이러한 자 학회 잡지 출간 어려움 해결은 전문의 시험과 연계하여 자 학회 논문제출시 모 학회지와 동일 평점을 회원들에 의한 홍보로 잡지 발간에 어려움을 해소하여야 하겠다.

미세수술학회의 회원 희망은 무엇인가에 대한 설문조사는 난이도 높으며 미세수술 특성상 자신을 소홀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가정을 우선으로 예상한 설문조사 이었지만 의외로 46.7%의 사랑을 선

**Table 12.** 2005년 10월부터 2007년 6월 30일 까지 월별 온라인 회원 증가 수



택하였다.

한 해중 기원하는 것이 46.7%에서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의외이었으나 이는 가정의 화목과 건강은 기본적으로 갖추고 미세 수술과 고난이도 수술을 시술하며, 이미 만들어진 명예 또한 5.7%에서만 기원하였다. 장시간 수술과 난이도 있는 수술로 인하여 메말라가는 감정에 사랑으로 충만한 의사의 삶이 필요 할 것이기에 사랑이 선택된 것으로 사료 된다.

미세수술이란 난이도가 높으며 수술실패 시 환자는 2배 결손부위가 만들어져 수술 후 결과가 분명한 수술이며 술자에게는 부담이 많은 수술인데다가 수술시간이 장시간이 특성인 것을 고려할 때 수술시 차분한 마음이 우리 회원 모두에게 중요한 것 같다.

미세수술환자의 상당부분이 산업재해 환자이다. 최근 산재 환자 진료 시 불편한 점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찾아가기 희망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근로 복지공단에서 시행하는 제도로서 근로복지공단의 비전공자문의사들이 미세수술 전문가의 산재환자 진료유무 결정을 다수결 표결에 의한 환자 진료결정하기, 주치의사의 향후 치료 계획 제출하기, 퇴원 후 통원 치료 시 환자에게 지급되는 교통비를 줄이기 위하여 상병명의 전문성과 관계없이 환자 거주지로서 강제 전원 등 행정조치에 대하여 일선 의료 기관에서는 90%에서 진료의 지장이 많은 것으로 대답하였다. 근로복지 공단에서는 진료에 직/간접적인 관여와 개입 등 전원 미 이행 환자는 최근 3개월 간 진료 기록부 요구하거나 진료에 차질을 초래 할 정도 행정업무가 과도하며, 이에 불이행에는 각종 행정제재를 통하여 진료제한 혹은 산업재해지정해제란 고비용 조이고 있다 치료기간 연장 시에도 상시 환자 진료 기간 중 환부 사진 제출, 진료기록 제출에 의한 환자 비밀 누설에 의한 노출에 대한 문제점 및 2008년부터 대형 종합 병원의 산재 강제 지정과 맞물려서, 회원 90%에서 현행 근로 복지 공단의 찾아가기 서비스에 불만은 향후 산재 환자 전원 후 2차 수술이 지연되어 회복 기능의 문제점에 대해 전원 병원끼리 분쟁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보험위원회에서는 근로 복지 공단에게 다 각도로 협의하여 진료권 침범을 하지 않는 범위에서 찾아가기 서비스를 제한적으로 시행하게 건의할 필요가 있다. 찾아가기 서비스로 의료직(paramedical)이 미세수술의 전문분야의 수술 및 진료결과에 개입에 의한 간섭은 의사 진료 권

리를 침탈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는 일선 의료기관이 산업 재해 환자를 기피하게 되는 원인으로 산재환자의 적정한 진료가 불가 할 수 있다. 학회로서는 근로 복지공단 희망 드림의 찾아가기 서비스 개선을 건의하여야 한다.

시사에 대한 설문 조사에는 현재의 문제점부분은 69.2%에서 개정 의료법을 인식하였고, 62.5%에서 의협회장 선거 시 회비 납부와 상관없이 모든 회원에서 선거권을 주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인터넷에 의한 의료계 뉴스를 접하게 되어 회원들의 의료적 시사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진 반면 30.8%의 관심이 없거나 모르는 회원을 위하여 대한 미세수술 학회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는 날마다 2~3개의 의학 관련 뉴스를 업데이트로써 회원들이 시사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 V. 결 론

설문조사가 수용할 수 있는 응답률은 전체 회원 중 적어도 50%가 되어야 일상적 분석 보고를 할 만 하며 70% 정도면 매우 좋은 응답률이다. 그러나 2.96%의 적은 회원 설문 조사 참여로서 미세수술 학회 회원들이 바라는 것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렵지만 과거 회원 의견을 전혀 수렴할 수 없는 상태보다는 지속적인 설문 조사의 홍보에 의한 참여로 회원의증을 알 수 있으며, 학회 발전 토대가 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회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온라인상 정보화 사업에 앞장서며 오프라인으로는 학회에 참여하는 회원이 원하는 학회를 개최하고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따뜻한 영접과 함께 학문과 사교, 화합이 장소를 만들어 대한미세수술학회 홈페이지를 구심점으로 하여 미세수술 관련 자료, 의료수가 조정, 신입회원의 증가, 학회 소식 전달 등으로 회원 간 유대관계와 집행부의 결속을 다져 학회의 발전시킴으로 요망하고 있다.

시대흐름에 따라서 학회 정보화 사업 추진도 중요하지만, 의사의 진료가 온라인상으로만 가능하지 않듯이, 오프라인상의 회원 간 만남을 중요하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회원이 원하는 학회로 개최하여 한다. 집행부는 회원들에게 따뜻한 영접과 함께 학회를 사교와 학문의 장소로 만들며 지속적인 학회 발

전은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적절한 혼합인 “디지로그 식” 학회 운영이 필요하다.

#### 논문 협조에 대한 감사 글

논문을 대한미세수술학회지에 게재할 수 있게 설문조사에 응답해주신 회원님께 감사드립니다.

2005년 10월 1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홈페이지 개설은 김우경 회장님의 학회 정보화 사업 제안으로 시작되었고 학회 정보화 사업은 전자 메일을 이용한 학회 홍보, 뉴스레터, 학술대회 소식을 회원에게 알리며, 학술 대회 장을 이용한 학술 대회 홍보 및 사전 등록, 초록 접수, 심사 등 논문 온라인 접수로 학회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춘계 합동 심포지엄과 추계 학술 대회의 참여인원은 홈페이지의 정보사업의 홍보와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으며, 정보화 사업 후 2005년 대한미세수술학회 오프라인 정회원은 439명에서 2007년 6월 현재 547명으로 24.6%의 회원이 증가하여 회원들의 미세수술에 대한 관심도 또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도표와 같이 온라인 가입자 수도 월 평균 11.8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료와 학문에 바쁘시지만 홈페이지 개설 후 매월 정기적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주신 회원께 감사드리며 향후 회원님들의 건의사항도 설문조사로 채택할 예정이오니 학회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조사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고 이의 논문 발행을 제안해주신 정덕환 이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간 보내주신 회원님의 성원에 집행부의 한사람으로써 마음속 깊이 감사드립니다.